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사용 연구 개관

임 남 연 이 화 령 서 은 국[†]
연세대학교

최근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인 조류와 함께 행복,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과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관적 안녕감 연구들에 대한 조명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요소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아직 한국에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개관이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의 문헌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서 본 척도를 사용한 주관적 안녕감 연구들을 정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루어진 19개 연구의 저자들로부터 4,342명의 응답을 제공받아 삶의 만족 척도의 기술통계적, 심리측정적 속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에서 측정된 삶의 만족 척도는 기존 척도의 개관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적절한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보임으로써, 심리측정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관련 변인들과의 적절한 상관을 가짐으로 공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만족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국내의 주관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 연구를 위한 좋은 정보가 될 것이며,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삶의 만족 척도, 주관적 안녕감, 한국인, 신뢰도, 타당도

[†] 교신저자: 서은국,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Tel: 02-2123-2435, Fax: 02-2123-4354, E-mail: esuh@yonsei.ac.kr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행복'은 시대를 통틀어 모든 사람의 궁극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오래된 궁극증을 풀기 위한 심리학자들의 체계적 접근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다. 1980년대에 들어 행복과 관련된 체계적인 개념 정의와, 관련 개념의 측정을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면서부터 비로소 행복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Diener는 1984년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에 대한 개관논문을 통하여 그 이전까지의 행복과 관련된 고찰과 연구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주어진 기준에 근거한 행복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행복, 즉 행복의 주관성에 대해 강조하였고(Diener, 1984), 이를 토대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Diener, Suh, Lucas와 Smith(1999)는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Wilson(1967)이 '높은 행복수준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 정리했던 여러 변인들에 대하여 실증적 증거들을 가지고 재조명하였다. 저자들은 이 논문에서 객관적인 속성 및 인구통계학적인 속성은 행복한 사람을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온 만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주관적 안녕감과 삶에 대한 만족

주관적 안녕감은 삶에 대한 만족(life satisfaction), 정적 정서(positive affect), 그리고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Diener, 1984). 즉, 행복한 상태,

혹은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상태는 삶에 대한 만족이 높고, 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며, 동시에 부정적 정서를 느끼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에는 정서적 요인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인지적인 판단과정도 함께 포함된다(Diener et al., 1999). 구체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기준들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즉 인지적 판단 과정이다(Andrews & Withey, 1976; Shin & Johnson, 1978). 본 논문에서는 인지적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이 '삶에 대한 만족'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논의해 보자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근거로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 중 하나로 개인이 느끼는 정적, 부정적 정서가 사용되기도 한다(Schwarz & Strack, 1991). 즉, 정서적 요인이 인지적 요소인 삶에 대한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대로 인지적 판단이 정서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진화적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이익이라 판단되는 자극에 대하여 정적 정서를, 위협이라 판단되는 자극에 대하여 부정적 정서를 느낀다(Lazarus, 1991; Lucas, Diener, & Suh, 199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을 이루는 구별되는 두 개념인 정서적 안녕감과 인지적 안녕감인 삶의 만족은 일정한 상관을 가지긴 하지만(Diener, 1994; Lucas et al., 1996), 인구통계학적 특성들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서로 다른 상관을 갖는 독립된 개념들이다(Diener et al., 1999; Lucas & Gohm, 2000). 그러므로 보다 정교하게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안녕감과 정서적 안녕감은 따로 측정

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을 평가하는 과정은 '자기 삶의 어떤 특정 영역이 전체적인 삶의 질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는가'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된다(Shin & Johnson, 1978).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총체적인 만족도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거나 사용하는 정보의 비중이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각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Diener, Lucas, Oishi, & Suh, 2002). 즉 직업, 건강, 대인관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만족이 삶 전체의 만족에 대해 판단할 때에는 사람마다 그 중요도가 다르게 반영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지위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경제적 지위보다는 대인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자기의 전반적인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판단할 때 경제적인 지위를 반영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Diener 등(2002)은 삶에 대한 만족을 판단할 때, 서로 다른 영역에 대한 만족도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들을 사용하는 비중에서도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개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문화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Suh, Diener, Oishi와 Triandis(1998)는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판단할 때 개인적 정서에 많은 비중을 두는 반면,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적 규범에 근거한 판단을 더 많이 내리는 현상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추론하기 위하여 영역별 만족도와 구체적인 정보들에 대하여 측정된 값을 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합산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마다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른 중요도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avot과 Diener(1993)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할 때는 영역별 만족도를 따로 측정하여 연구자의 판단에 의하여 일률적인 부하를 줄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 영역별 중요도에 따라 반영하는 비중을 달리하여 삶에 대한 만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개인의 삶의 만족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정서의 종류도 다를 수 있다(Pavot & Diener, 2008). 즉, 같은 정적 정서 중에서도 개인마다 보다 의미 있게, 혹은 중요하게 여기는 정서의 종류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을 평가하는 것은 정적,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여 이 정서들의 값을 일률적으로 더하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결정할 때,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경험하는 정서 등의 일시적 상태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또한, 안정적이고 잘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특질, 기질, 만성적인 상태로부터의 영향도 받는다(Heller, Watson, & Hies, 2004; Schimmack, Diener, & Oishi, 2002; Schimmack & Oishi, 2005). 다시 말하면,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은 일시적인 정서나 사건의 영향도 받기는 하지만 정서적 안녕에 대하여 미치는 일시적, 상향적(bottom-up) 영향에 비하면 그 크기가 작다.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은 비

교적 변동의 폭이 작고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다(Stubbe, Posthuma, Boomsma, & Geus, 2005). 또한 사건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인하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일시적으로 변화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에 의한 만성적 삶의 만족도 수준을 되찾게 된다(Headey & Wearing, 1989; Suh, Diener, & Fujita, 1996). 그러나 많은 종단 연구들이 보고하는 바에 의하면 개인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영향으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에 장기적이고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Heller, Watson, & Hies, 2006; Lucas, Clark, Georgellis, & Diener, 2004).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동시에 삶의 결정적 변화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제시한 삶의 만족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는 이러한 심리측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척도 중 하나이다.

삶의 만족 척도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는 개인이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지적인 판단을 측정한다.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 척도들이 존재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지적 판단에 의한 삶의 만족 이외의 다른 개념들도 동시에 측정하거나(D-T Scale: Andrews & Withey, 1976), 특정 연령집단의 삶의 만족도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거나(PGCMS:

Lawton, 1975), 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단 문항 척도는 질문의 언어적 표현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상쇄되지 않으며, 문항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Diener, 1984).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한 삶의 만족 척도는 삶에 대한 만족 이외의 다른 개념들은 측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다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이다. 이 척도는 응답자가 검사자의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사용하여 자기의 전반적인 삶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한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라는 점에서(Diener & Suh, 2000), 삶의 만족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척도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척도는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한 개의 공통요인을 반영하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응답하는(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매우 동의한다) 간단한 척도이다(Diener et al., 1985). 삶의 만족 척도는 많은 척도들에서 질문에 대하여 동의하려는 성향(item acquiescence) 때문에 나타나는 오차(Rorer, 1965)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역문항을 사용하지 않았다. 역문항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표현된 문항의 방향을 부정문으로 역전하여 표현한 뒤, 항목의 점수를 역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역문항의 사용은 응답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오차의 영향은 매우 작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삶의 만족 척도에서 역문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Pavot & Diener, 1993),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산출할 때는 다섯 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전 없이 합산한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최소 5에서 최대 35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삶의 만족 척도의 값이 5~9 사이인 경우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태이고, 10~14 사이이면 불만족, 15~19 사이는 약간 불만족, 20 이면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중립 상태, 21~25 사이는 약간 만족, 26~30 사이는 만족, 그리고 31~35 는 매우 만족스러운 상태로 범위를 정하였다.

삶의 만족 척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졌다(Diener et al., 1985; Pavot & Diener, 1993, 2008; Pavot, Diener, Colvin, & Sandvik, 1991). 삶의 만족 척도에 대한 첫 번째 개관이 이루어진 이후(Pavot & Diener, 1993), 약 15년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발견들에 대하여 같은 저자들이 다시 정리한 두 번째 개관한 논문도 발표되었다(Pavot & Diener, 2008). 삶의 만족 척도는 이와 같은 타당화 작업들을 통하여 활기, 건강 등과 같이 측정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삶의 만족과 상관 이 높은 개념들과 구별되며, 독립적인 하나의 공통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avot et al., 1991). 또한 내적타당도와 신뢰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연령 집단에게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검증되었다(Diener et al., 1985). 또한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영역인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도 상관관계를 가졌다. 예를 들어 삶의 만족 척도는 삶의 만족 지수(Life Satisfaction Index-A: LSI-A; Neugarten, Havinghurst, & Tobin, 1961)와 .81의 상관을 가졌다(Pavot et al., 1991). 또한 한 문항으로 5일 동안 매일, 그 날의 만족감을 측정한 일일 만족도(daily satisfaction; Pavot

et al., 1991)와는 .65의 적절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삶의 만족도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 또는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 좋은 수렴 타당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는 또한 DeNeve와 Cooper(1998)가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Big 5(Costa & McCrae, 1992)의 다섯 가지 성격 특질 중,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성격 특질인 외향성과 신경증에 대하여 각각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 척도는 1회의 자기보고를 통한 측정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한 삶에 대한 만족과도 좋은 수렴타당도를 가진다. 먼저, 연구자가 측정한 대상자의 삶에 대한 만족($r=.43$), 그리고 정보제공자가 보고한 대상자의 삶에 대한 만족 값(r 은 .28~.58 사이)은 피험자가 자기보고한 삶의 만족 척도 값과 적절한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Diener et al., 1985; Pavot & Diener, 1993). 또한 2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 측정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의 상관을 가짐으로써 좋은 시간적 안정성을 지니는 것도 검증되었다(Diener et al., 1985). 이후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두 번째 측정 시점이 처음 측정한 시점으로부터 오래 지날수록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점차 낮아짐을 확인하였다(Pavot & Diener, 1993). 이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삶의 만족 척도는 시간적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Magnus, Diener, Fujita, & Pavot, 1993).

이와 같이 삶의 만족 척도는 바람직한 심리 측정적(psychometric) 특성을 갖추고 모든 연령 층을 대상으로 사용하기에 간단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척도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Diener와 동료들(1985)이 삶의 만족 척도를 개발하며 저술한 논문은 현재까지 1,624편, 이 척도를 개관한 Pavot과 Diener (1993)의 논문은 460편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연구와 논문에 인용되었다(2009년 9월 현재, APA PsycNet으로 집계). 이러한 삶의 만족 척도는 비단 미국인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와 문화 차이 연구(Inglehart & Klingemann, 2000; Veenhoven, 1993)에서도 사용되었다. 현재 삶의 만족 척도는 네덜란드어(Arrindell, Meeuwesen, & Huyse, 1991),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Pavot & Diener, 1993, 2008). 이러한 추세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어로는 Suh(1994)의 미발표 석사학위논문에서 최초로 번안되어 사용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이 척도가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 척도 연구

한국에서도 최근 행복과 관련된 연구가 점차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또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의 특질과 경험, 대인관계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구재선, 김의철, 2006; 박경혜, 2005; 허현정, 2004), 행복 혹은 행복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태도에 따른 행복의 개인차 및 문화차(구자영, 2007; 성민선, 2007), 자아(self)와 행복의 관계(박정현 서은국, 2005; 안신능, 2006; 육근영, 방희정, 옥정, 2006; 이은경, 서은국, 2007; 조미랑, 2004), 객관적 신체적 매력이 행

복에 미치는 영향(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목표추구 및 성취와 삶의 만족(이진, 2008), 사회비교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황혜진, 2005)와 같은 연구에서부터 개인의 행복 또는 삶의 만족과 행동수준의 차이(복권구매 행동: 김정운,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음악 선호: 박정양, 서경현, 2008; 외향적 행동: 이화령, 임남연, 류초롱, 서은국, 박수진, 2008), 소비자 만족과 삶의 질(배주영, 2005), 그리고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김정호, 2007) 등 행복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질문지에 일회 응답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상재구성법(DRM)을 사용한 연구(장재윤, 유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종단연구(안신능, 2006), 정보제공자에 의한 응답(황혜선, 서은국, 2008)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며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에 반해 관련된 구성개념들을 측정하는 척도의 검증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삶의 만족 척도는 한국의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한국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 척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삶의 만족 척도는 미국에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충분한 타당화와 검증을 거친 척도이다. 그러나 심리현상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다른 문화권이나 국가에서 적용될 때에는 요인불변성(factorial invariance)이 성립되지 않아서 요인구조나 요인부하량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요인불변성이 만족된다 해도 이 척도가 측정하는 대상은 문

화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Kitayama와 Markus(2000)는 문화 간에 안녕감이 의미하는 바와 이로부터 느껴지는 바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되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삶의 만족 척도는 독립적인 타당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이 척도에 대한 검증 노력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김완석과 김영진(1997)이 주관적 만족과 객관적 만족을 아우르는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 등의 심리측정적 속성에 대하여 신뢰도가 높고 다른 측정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에 대한 총체적인 개관과 함께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행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의 부재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번안 작업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 척도는 체계적으로 번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적절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 ‘생활 만족도’ 등과 같이 통일되지 않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몇 가지 번역본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삶의 만족 척도 마지막 문항은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인데, 김정호(2007)에서는 “만약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삶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로, 긍정문으로 번역된 반

면, 안신능(2006)에서는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와 같이 부정문을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이러한 긍정, 부정의 표현 방법의 차이는 응답자에게 서로 다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Pavot & Diener, 1993),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사용된 삶의 만족 척도들은 몇몇 연구에서 문항이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김정운과 이누미야 요시유키(2003)에서 ‘생활만족도’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번역판은 문항의 순서가 Diener와 동료들(1985)이 사용한 삶의 만족 척도 문항의 순서와 다르다. 문항 배열의 영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으나(Schimmack & Oishi, 2005), 이러한 문제들은 삶의 만족 척도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 및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가 증가하고,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관련된 구성개념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한국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과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 척도의 기술통계적 속성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의 척도 사용 현황 및 척도의 기술통계적, 심리측정적 속성을 고찰해 보았다. 국회도서관과 한국심리학회 웹사이트에서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을 검색하여, 검색된 모든 논문의 저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이에 응하여 협조한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가 본 개관논문에 사용되었다. 그 결과 2003년부터 2008년(자

료 협조를 위한 연락 시점) 사이에 이루어진 19개의 연구에서 4,342 명의 표본이 응답한 자료가 수집되어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과 학위논문, 그리고 미발표된 자료들 가운데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관련된 연구들을 포함하였다. 모든 샘플의 국적은 한국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특성 중 하나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수도권 대학생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료가 수집된 연구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이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생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본 개관을 위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대부분은 대학생이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몇몇 연구에서 대학생이 아닌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의 삶의 만족도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삶의 만족 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척도로서 적절한 수준의 변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수집된 표본 전체에서 보고된 삶의 만족도 값의 범위는 5~35 사이였다. 이 척도의 가능한 범위가 최소 5부터 최대 35 사이이므로 표본의 삶의 만족도가 전체 범위에 걸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균은 18.07~23.83 의 값을 가졌고, 대부분의 평균값이 20~22 사이에 분포해 있는데, 이는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중립(20)과 약간 만족스러움(21~25)의 사이에 속하는 것이다. Pavot과 Diener(1993)가 보고한 대부분의 표본에서 삶의 만족도 평균이 23~28 사이인 약간 만족, 만족 범위에 분포하는 경향과 비교할 때, 한국인 표본의 삶의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 문

화권 국가들보다 덜 행복하며(Diener & Suh, 1999; Suh & Koo, 2008; Veenhoven, 1999), 낮은 삶의 만족을 보고한다는 이전 연구들(Diener & Suh, 2000; Oishi, 2001)과도 맥을 같이한다.

한국에서 측정된 삶의 만족 척도 값의 표준편차는 3.5~7.12 의 값을 가지고 있다. Pavot과 Diener(1993, 2008)가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에 대한 개관논문에서는 각각 삶의 만족 척도의 표준편차가 4.5~9.0, 3.0~12.2 사이의 값을 나타냈다. 즉,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 척도의 변량이 미국에서 보고된 결과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보인다. 변량이 비교적 작게 나타난 원인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한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표본집단을 비교적 동질적인 수도권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한국인은 미국, 유럽 등의 서양 문화권 사람들에 비하여 척도 상에 자기보고를 할 때 극단적인 값을 피하고 중앙값에 가깝게 보고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Lee & Green, 1991), 실제 응답자들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단순한 측정상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국 응답자들의 성향으로 인해, 본래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자료에서보다 변량이 작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한국 표본이 보고하는 삶에 대한 만족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에서 보고된 것 보다 낮은 값 주변에 몰려 있다.

삶에 대한 만족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Lucas와 Gohm(2000)의 주관적 안녕감의 성차와 문화차 연구에서, 인지적 영역인 삶에 대한 만족에서는 성별 차

표 1. 자료의 기술 통계치: 표본 수, 응답자의 평균 나이와 삶의 만족도 측정치

표본	표본 수	나이 평균 (표준편차)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1. 연구 1			
한국 성인			
노래자랑 참가자	218	-	21.70(7.03)
퀴즈대회 참가자	76	-	18.07(7.12)
연구 2	40	21.88(2.35)	20.80(5.12)
연구 3	19	21.95(1.99)	21.89(5.09)
2.			
연세대 학생			
1차	225	21.39(2.31)	21.38(5.81)
2차	200	21.43(2.34)	20.90(6.01)
3. 연구 2			
연세대 학생			
A	78	20.51(2.71)	20.77(5.79)
B	85	22.00(1.85)	21.72(5.54)
D	159	19.69(1.72)	21.26(6.25)
E	113	22.33(2.40)	20.78(5.75)
G	102	21.38(2.51)	20.65(5.89)
4.	75	21.21(2.71)	23.83(5.30)
5.	129	20.66(2.23)	22.22(4.84)
6.	84	21.35(2.07)	22.00(5.65)
7.	12	-	20.58(4.72)
8.	44	20.36(2.00)	20.00(5.84)
9.	155	20.82(2.07)	21.92(6.32)
10.			
연세대 학생			
본인	61	-	19.90(5.14)
친구들	114	-	21.42(5.61)
11.	347	21.35(2.43)	20.35(5.59)
12.	343	20.45(2.14)	18.72(5.44)
13.	206	20.21(1.76)	22.46(5.95)
14.	77	-	22.70(6.27)
15.	131	22.85(2.20)	20.80(5.53)
16. **	247	21.87(3.06)	21.87(5.62)
17.	579	32.90(10.47)	21.00(5.56)
20대	270	24.15(3.25)	19.99(5.72)
30대	159	34.34(2.92)	22.47(5.51)
40대	108	43.59(2.88)	21.56(5.21)
50대	32	52.63(2.11)	20.84(4.44)
60대 이상	10	67.90(4.23)	19.70(3.50)
18. *	100	74.5(4.78)	15.08(3.97)
19.	118	-	20.99(5.87)
연세대 학부생			
연세대 학부생 (정보제공자 응답)	207	22.27(5.71)	23.50(5.02)
총		4,342	-
			총평균 21.16(5.87)

참고. 이 자료는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의 다섯 문항을 모두 빠짐없이 작성한 자료만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며 응답자 수도 다섯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한 사람의 수이다. 총평균은 5점 척도를 사용한 윤훈 등(2007)를 제외한 값이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자료;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이 아닌 총점 값만 제공받은 자료로, 요인구조를 알 수 없음; -=보고되지 않음

1. 이화령 등(2008); 2. 안선남(2006); 3. 구자영(2007); 4. Park & Suh(2006); 5. 임남연(2008); 6. Lim et al.(2007); 7. Lim & Suh(2008); 8. 박진아, 서은국(2006); 9. Sung et al.(2007); 10. 이은경, 서은국(2007); 11. 박정양, 서경현(2008); 12. 서경현 등(2008); 13. 이권(2008); 14. Kim, Oh, & Lee(2007); 15. 김정호(2007); 16. 육근영 등(2006); 17. 김정운, 이누미야 요시유키(2003); 18. 윤훈, 이순철, 오주식(2007); 19. 황세선, 서은국(2008)

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모든 문화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삶의 만족에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 평균값의 차이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다수 표본에서 성별은 삶에 대한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유의한 성차를 보이는 자료들도 남성이나 여성 중 한 성별집단이 일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는 않거나, 표본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방향성의 성차가 나타나는 등,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Lucas & Gohm, 2000).

삶의 만족은 나이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의 서로 다른 연령집단에서 높은 삶의 만족을 보고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집단 간에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이는 문화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ener & Suh, 1998; Lucas & Gohm, 2000). 성인들이 노년기로 가며 점차 정서적 안녕감이 낮아지나, 삶의 만족도는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보다 높아진다는 보고도 존재한다(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의 대부분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응답자간 나이의 편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나이에 따른 삶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검증하기 힘들다. 단, 모든 연령대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정운과 이누미야 요시유키(2003)의 연구를 통해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폭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유의한 삶의 만족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40대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나머지 연령 집단들(20, 50, 60대 이상)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며, $t(577)=4.84, p<$

.001, 나머지 연령 집단들 간에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집단 별 삶의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 참고). 그러나 이 결과는 한 연구에서 나타난 현상이므로 한국인의 삶의 만족과 나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삶의 만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으로 실시한 Diener 등(1985)의 연구에서는 주축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개의 공통 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구조는 이후 실시된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재검증되었고, 특히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등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실시한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 척도는 동일한 요인구조를 가졌다(Pavot & Diener, 1993). 한국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 척도도 다섯 문항 모두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한 가지 요인을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이 가능한 모든 표본(삶의 만족도 척도 총점 형태가 아닌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점수가 제공된 표본)에 대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크리 도표상의 고유치들을 조사하여 요인의 수를 추출한 결과, 모든 표본에서 예외 없이, 1보다 큰 고유치는 한 개였다. 스크리 도표에 나타나는 다섯 개의 고유치 중 첫 번째, 즉 가장 큰 고유치는 2.74~3.55의 값을 가졌다. 또한 삶의 만족 척도(5문항)와 함께 삶의 기대(5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한 연구(김정호, 유제민, 서경현, 임성견, 김선주, 김미리혜, 공수자, 강태영, 이지선, 황정은, 2009)에서는 삶의 만족과 삶의 기대가 각각 한 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 척도의 고유치는 3.14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 척

표 2. 각 표본의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하였을 때의 고유값과 요인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

표본	고유값(eigen values)					요인의 설명력(%)
1. 1차	3.25	.70	.47	.35	.24	56.83
2차	3.25	.70	.47	.35	.24	56.87
2.	2.91	.73	.61	.43	.33	56.87
3. A	3.04	.71	.52	.51	.22	52.16
B	3.36	.67	.42	.37	.18	59.47
D	3.22	.63	.58	.34	.23	56.10
E	3.07	.67	.52	.47	.27	52.56
G	3.33	.64	.42	.37	.24	58.41
4.	2.93	.62	.60	.47	.39	48.22
5.	3.09	.69	.65	.30	.28	52.97
6.	3.06	.63	.55	.41	.35	51.77
7.	2.97	.77	.61	.43	.22	50.75
8.	3.04	.70	.54	.40	.32	51.23
9. 본인	2.83	.87	.63	.47	.20	47.95
친구	3.20	.64	.52	.38	.26	55.63
10.	3.51	.52	.44	.34	.19	63.26
11.	3.22	.67	.43	.36	.32	55.84
12. 연구 1	3.14	.61	.47	.41	.38	53.71
연구 2	2.79	.85	.55	.44	.37	46.46
연구 3	3.05	.78	.54	.42	.21	52.49
13.	2.86	.70	.60	.49	.35	47.27
14. 본인	3.22	.66	.46	.36	.30	55.91
정보제공자	2.89	.72	.64	.46	.29	48.37
15.	2.74	.95	.56	.53	.22	44.05
16.	3.28	.58	.44	.39	.32	57.02
17.	2.89	.85	.54	.40	.33	48.52
18.	3.55	.50	.42	.35	.18	64.24

참고. 1. 안신능(2006); 2. 윤훈 등(2007); 3. 구자영(2007) 연구 2; 4. 김정운, 이누미야 요시유키(2003); 5. 김정호(2007); 6. 박정양, 서경현(2008); 7. 박진아, 서은국(2006); 8. 서경현 외(2008); 9. 이은경, 서은국(2007); 10. Kim et al.(2007); 11. 이진(2008); 12. 이화령 등(2008); 13. 임남연(2008); 14. 황혜선, 서은국(2008); 15. Lim, & Suh(2008); 16. Lim et al.(2007); 17. Park & Suh(2006); 18. Sung et al.(2007)

도도 한 개의 요인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요인 수를 1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한 개의 요인이 변량 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은 44.05 %~64.24 % 사이로 나타났다(표 2). 이 범위는 Diener 등 (1985)의 삶의 만족 척도 연구에서 한 요인이 전체 변량에 대하여 66 %의 설명력을 가졌던 것과 비교할 때 약간 낮은 수치이다.

삶의 만족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1요인 요인구조가 적절한지를 나타내는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 8.8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적합도 지수 중 GFI(Goodness of Fit Index) 값은 .95 이상이면 좋은 모형, .90 이상이면 합당한 모형으로 보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 수준으로, .08 이하는 합당한 수준으로 본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경험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신뢰도 구간의 범위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판단해야 한다. 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GFI 값이 .92~1.00 사이의 값을 가졌다. RMSEA 값은 .00~.19 사이의 범위를 가졌으나, 대부분의 표본에서 .08 이하의 값을 나타냈고, .80 이상인 표본들의 경우도 GFI는 모두 우수한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삶의 만족 척도의 1요인 요인구조는 한국에서도 합당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델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되었다.

Pavot과 Diener(1993, 2008)는 두 차례의 삶의 만족 척도 개관에서 다섯 번째 문항이 나머지 네 문항과 비교하여 요인부하량과 문항-총점

간 상관이 지속적으로 작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참조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나머지 네 문항이 삶에 대한 만족을 평가할 때 현재 상태를 참조하도록 하는 반면, 다섯 번째 문항('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은 과거를 참조하도록 표현되어 있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종합하는, 질적으로 다른 인지적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에서도, 그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Pavot과 Diener(1993, 200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다섯 번째 문항의 요인부하량과 문항-총점 간 상관의 평균이 나머지 네 문항에 비해 약간 작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다섯 번째 문항은 '다시 태어난다 해도' 혹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와 같이 참가자의 주의를 현재의 삶에서 처음으로 돌아가 현재까지의 삶을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의 삶의 상태에 대하여 묻는 나머지 네 문항과 인지적으로 다른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대하여는 Pavot과 Diener(1993)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험적 검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논의할 것은, 다섯 번째 문항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번역판간에 나타난 긍정문 사용과 부정문 사용의 차이이다. 본 개관에서 참고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내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겠다' 또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부정문을 사용하였으나, 세 개의 연구에서(김정호, 2007; 박정양, 서경현, 2008;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는 '내 삶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표 3.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지수

요인	표본	문항별 요인부하량					모형적합도 지수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문항 5	RMSEA (GFI)
삶 에 대 한 만 족	1.	.77(1.00)	.59(.77)	.82(1.06)	.63(.82)	.80(.77)	.00(.99)
	2.	.51(1.00)	.79(1.55)	.63(1.24)	.83(1.63)	.68(1.34)	.00(.99)
	3. *	.70(1.07)	.67(1.02)	.66(1.00)	.72(1.09)	.72(1.10)	.10(.98)
	4.	.81(1.00)	.53(.65)	.81(1.00)	.67(.83)	.79(.98)	.19(.92)
	5.	.80(1.00)	.72(.90)	.84(1.05)	.70(.88)	.66(.83)	.12(.96)
	6.	.84(1.00)	.72(.86)	.93(1.11)	.69(.82)	.77(.92)	.00(.98)
	7.	.59(1.00)	.74(1.24)	.78(1.31)	.77(1.29)	.70(1.18)	.15(.95)
	8.	.62(1.00)	.73(1.19)	.73(1.19)	.79(1.29)	.71(1.16)	.10(.97)
	9. 본인	.74(1.00)	.57(.54)	.84(1.31)	.62(.96)	.53(.65)	.11(.95)
	친구**	.77(1.00)	.57(.77)	.84(1.06)	.62(.91)	.53(.77)	.09(.97)
	10.	.89(1.00)	.73(.81)	.90(1.01)	.75(.84)	.72(.81)	.05(.98)
	11.	.90(1.00)	.73(.82)	.81(.90)	.59(.66)	.44(.49)	.00(.96)
	12.	.79(1.00)	.53(.67)	.51(.65)	.65(.82)	.79(1.00)	.00(.89)
	13.	.78(1.00)	.73(.93)	.82(1.05)	.71(.91)	.73(.93)	.00(.98)
	14.	.71(1.00)	.65(.92)	.84(1.19)	.75(1.06)	.48(.67)	.11(.96)
	15. 연구 1 노래	.74(1.00)	.66(.89)	.72(.97)	.74(1.00)	.66(.88)	.08(.98)
	퀴즈	.87(1.00)	.81(.93)	.92(1.06)	.67(.77)	.68(.78)	.00(.99)
	연구 2	.76(1.00)	.35(.46)	.80(1.06)	.75(.99)	.65(.85)	.00(1.00)
	연구 3	.94(1.00)	.68(.72)	.62(.66)	.71(.76)	.62(.66)	.00(.93)
	16. 1차	.74(1.00)	.71(.95)	.91(1.23)	.64(.86)	.52(.70)	.08(.98)
2차	.94(1.00)	.68(.83)	.91(1.11)	.70(.86)	.64(.78)	.13(.96)	
17. 연구 2 A	.85(1.00)	.62(.73)	.89(1.04)	.64(.76)	.54(.64)	.06(.97)	
B	.89(1.00)	.71(.80)	.85(.96)	.75(.84)	.60(.68)	.18(.92)	
D	.86(1.00)	.71(.83)	.80(.93)	.74(.86)	.62(.72)	.18(.93)	
E	.73(1.00)	.63(.86)	.78(1.22)	.80(.98)	.65(.84)	.06(.98)	
G	.79(1.00)	.80(1.01)	.78(.98)	.80(1.00)	.65(.81)	.15(.94)	
18. 자기*	.82(1.30)	.74(1.17)	.81(1.29)	.72(1.14)	.63(1.00)	.11(.96)	
지인	.89(1.29)	.69(1.00)	.53(.77)	.61(.89)	.70(1.00)	.10(.97)	
평균		.79(1.02)	.67(.89)	.79(1.05)	.71(.95)	.65(.86)	.08(.96)

참고. *=문항의 순서가 달라. 다른 문항들의 순서로 재배열; () 안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요인부하량. **=친구는 참가자의 삶에 대한 만족이 아닌 친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보고함

1. 임남연(2008); 2. 윤훈 등(2007); 3. 김정운 등(2003); 4. 김정호(2007); 5. 이진(2008); 6. Kim et al.(2007); 7. 서경현 등(2008); 8. 박정양, 서경현(2008); 9. 이은경, 서은국(2007); 10. Sung et al.(2007); 11. 박진아, 서은국(2006); 12. Lim & Suh(2008); 13. Lim et al.(2007); 14. Park & Suh(2006); 15. 이화령 등(2008); 16. 안신능(2006); 17. 구자영(2007); 18. 황혜선, 서은국(2008)

것이다'의 긍정문 표현을 사용하였다. 긍정문으로 표현된 척도와 부정문으로 표현된 척도에서 다섯 번째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각한 오차를 발생시키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의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들 간에 번역본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삶의 만족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 그리고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표 4).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에서 삶의 만족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4~.95 사이이고, 대부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0 이상으로 우수한 문항 내적 합치도를 나타내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개관에서 보고한 .79~.89 사이의 신뢰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의 시간적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한 연구들의 보고를 살펴볼 수 있다. 김정호 등(2009)에서는 여자 대학생 58명을 대상으로 5주의 간격을 두고 삶의 만족 척도를 측정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83($p < .01$)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신능(2006)에서는 대학생들로부터 학기 초와 2달 후에 각각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 .77($p < .01$)을 보고하였다. Diener 등(1985, 연구 1)의 연구에서 실시했던 2달의 간격을 둔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가 .82로 보고된 것과 유사한 수치이다. 따라서 삶의 만족 척도가 한국에서도 시간적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측정 간 시간적 간격이 길어질수록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가 작아지는 것은 이 척도가 시간적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동시에 지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두 연구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어려우므로, 또 다른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추후 연구들을 통하여 보다 명확히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 척도는 적절한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1요인 구조를 가지는 점과, 이 요인에 의한 설명력은 삶의 만족 척도가 한국에서도 척도로서의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높은 합치도계수를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우수한 심리측정적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구조와 신뢰도는 미국에서의 삶의 만족 척도가 갖는 값과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종합적으로, 삶의 만족 척도는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측면에서 적절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가진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 그리고 행복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기대되는 변인들과 성격 특질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심리적 특성, 성격 특질, 및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들과의 상관을 통해 수렴타당도와, 공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삶의 만족과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한 응답자의 삶의 만족 척도 값과 그 응답자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대하여 두 명의 서로 다른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응답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황혜선, 서은국, 2008). 그 결과, 두 정보제공자의 응답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는데($r = .37, p < .001$),

표 4. 문항-총점간 상관과 문항간 신뢰도

표본	문항-총점간 상관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문항 1	문항 2	문항 3	문항 4	문항 5	
1.	.79	.69	.81	.74	.74	.80
2.	.63	.80	.73	.84	.78	.81
3. *	.77	.74	.74	.77	.79	.82
4.	.81	.67	.81	.78	.85	.94
5.	.83	.77	.85	.77	.79	.95
6.	.85	.80	.91	.77	.83	.89
7.	.68	.78	.81	.82	.79	.84
8.	.71	.79	.78	.82	.81	.84
9. 본인	.77	.65	.86	.74	.71	.80
친구**	.76	.73	.80	.75	.69	.85
10.	.89	.80	.89	.82	.81	.89
11.	.84	.78	.80	.74	.67	.81
12.	.79	.72	.72	.70	.77	.79
13.	.81	.80	.84	.77	.82	.86
14.	.76	.71	.83	.81	.66	.80
15. 연구 1 노래	.80	.73	.77	.79	.77	.82
퀴즈	.88	.85	.91	.77	.77	.89
연구 2	.78	.54	.82	.78	.77	.78
연구 3	.87	.74	.68	.77	.82	.81
16. 1차	.77	.76	.86	.75	.72	.82
2차	.83	.75	.88	.79	.78	.86
17. 연구 2 A	.83	.73	.85	.77	.71	.83
B	.88	.81	.84	.82	.75	.87
D	.86	.77	.82	.80	.75	.86
E	.78	.72	.86	.77	.77	.84
G	.84	.81	.83	.82	.77	.87
18. 자기 보고*	.84	.79	.84	.79	.75	.86
지인 보고	.85	.78	.66	.74	.75	.81

참고 * = 문항의 순서가 달라, 다른 문항들의 순서로 재배열; () 안은 문항척도간 상관, ** = 정보제공자는 참가자의 삶에 대한 만족이 아닌 정보제공자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보고함

1. 임남연(2008); 2. 윤훈 등(2007); 3. 김정운 등(2003); 4. 김정호(2007); 5. 이진(2008); 6. Kim et al.(2007); 7. 서경현 등(2008); 8. 박정양, 서경현(2008); 9. 이은경, 서은국(2007); 10. Sung et al.(2007); 11. 박진아, 서은국(2006); 12. Lim & Suh(2008); 13. Lim et al.(2007); 14. Park & Suh(2006); 15. 이화령 등(2008); 16. 안신능(2006); 17. 구자영(2007); 18. 황혜선, 서은국(2008)

이는 한 개인이 삶에 만족하는 정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타인들이 유의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서로 다른 두 정보제공자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대상자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합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흥미롭다(Pavot et al., 1991).

둘째로, 정보제공자와 참가자 간 응답의 상관관계수는 $.30(p < .01)$ 으로 나타났다. Pavot과 Diener(1993)의 개관논문에서는 정보제공자의 응답과의 상관이 $.28 \sim .58$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과 비교할 때 이 범위 안에 존재하며 최소 값과 가까워, 약간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타인과 스스로의 삶의 만족도 평가 사이의 상관이 서양보다 작게 나타난 원인으로 객관적 조건에 근거한 평가이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타인을 파악할 때 내적 단서를 외적 단서에 비해 중요하게 여긴다(Anderson & Ross, 1984). 하지만 한국 대학생은 타인을 평가할 때 외적 단서와 내적 단서를 동등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정현, 서은국, 2005). 즉,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연구에 비하여 한국에서 정보제공자가 대상자의 삶의 만족을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객관적 상태를 더 많이 고려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삶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는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교육수준, 건강, 사회 경제적 지위나 외모와 같은 객관적, 외적인 요인에 비하여 주관적, 내적 요인의 영향을 보다 크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는다(Diener & Lucas, 1999; Diener et al., 1999).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 척도를 측정할 때,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한 만족을 판단할 때와 정보제공자가 대상자의 삶에 대한 만족을 판단할 때에 서로 다른 정보를 사용한 평가를 하여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증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공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삶의 만족도와 함께 주관적 안녕감을 이루는 나머지 두 요소인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와의 상관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삶의 만족은 정적 정서와는 $.32 \sim .61$ 의 정적 상관을, 부정 정서와는 $-.13 \sim -.38$ 의 부정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와 정적 상관을 가졌다. 주관적 안녕감과 삶에 대한 만족은 성격의 영향을 받는데(Diener & Lucas, 1999), 특히 성격 특질 중 외향성과는 정적 상관을, 신경증과는 부정 상관을 가진다(Costa & McCrae, 1980).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실시된 삶의 만족 척도 사용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외향성과 정적 정서는 강력한 정적 상관을 가지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문화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Lucas & Fujita, 2000). 이에 더하여 외향성과 삶에 대한 만족 간의 상관이 미국의 연구에서뿐 아니라 한국 문화에서도 검증되었다는 점은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이 모두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외향성과의 상관을 가진다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해 준다. 또한 특질로서의 우울, 불안, 분노 등은 삶의 만족 척도와 역상관을 가짐을 확인하였다(김정호, 2007). 우울과 불안, 분노가 다섯 가지 성격 특질 중 신경증의 성질에 속한다(Costa & McCrae, 1980, 1992)는 점에서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Shin과 Johnson(1978)에 따르면, 삶의 만족과 삶의 질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최명심과 손정락(2007)은 대학생들의 여러 영역에 대한 주관적 삶의 질이 실제로 삶의 만족과 상관을 가진다

표 5.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와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변인	참고문헌 번호					
	1	2	3	4	5	6
정적 정서	.32***	.49**	-	.53**	-	.46**
부적 정서	-.13*	-.38**	-	-.31**	-	-.24**
주관적 행복	.51***	-	-	.61**	-	-
삶의 기대	.30***	-	-	.37**	-	-
자존감	-	-	-	.52**	.63** (.55**)	.52**
자기효능감	-	-	.45**	-	-	-
자아일관성	-	.22**	-	-	-	-
외향성	-	-	-	-	.24* (.15*)	.24**
신경증	-	-	-	-	-.43* (-.39*)	-
우울	-	-	-.56**	-.52**	-.40**(-.49**)	-
불안	-	-	-.65**	-.60**	-.36**(-.34**)	-

참고. () 안은 2번째 측정했을 때의 상관; * $p < .05$ 수준; ** $p < .01$ 수준; *** $p < .001$ 수준

1. 박정양, 서경현(2008); 2. 육근영, 방희정, 옥정(2006); 3. 이진(2008); 4. 김정호(2007); 5. 안신능(2006); 6. 구자영(2007, 연구 2-D)

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만족 척도가 가지는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 척도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인지적 판단의 영역인 삶에 대한 만족이 정서적 영역인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와 변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 행복(SHS; Lyubomirsky & Lepper, 1999)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먼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로 주관적 행복을 예측한 뒤, 삶의 만족을 함께 투입하여 예측하였을 때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면 삶의 만족은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와 변별되는 고유변량을 가지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위의 네 변인들을 모두 측정된 김정호(2007)의 자료를 주관적 행복을 종속변인으로, 정적 정서, 부적 정서와 삶의 만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 1에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단계 2에서 정적 정서, 부적 정서, 그리고 삶의 만족을 모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단계 1의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주관적 행복의 전체 변량의 35%를 설명하였다. 단계 2에서 정적 정서, 부적 정서와 삶의 만족감은 주관적 행복의 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번째 단계에서 추가된 삶에 대한 만족감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예측하는 주관적 행복에 더하여 14%의 유의한 추가적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6). 이

표 6. 김정호(2007)의 주관적 행복에 대한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삶에 대한 만족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β	R ²	ΔR^2
주관적 행복	단계 1					
	정적 정서	-.178	.081	-.176**	.35	.35***
	부적 정서	.494	.079	.497***		
	단계 2					
	정적 정서	-.124	.072	-.122*	.49	.14***
	부적 정서	.295	.078	.296***		
	삶에 대한 만족	.324	.056	.439***		

참고. * $p < .10$ 수준; ** $p < .05$ 수준; *** $p < .001$ 수준

결과는 삶의 만족 척도가 정서 척도와 변별성을 가지는 척도임을 검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논 의

본 개관 연구에서는 Diener 등(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 척도가 번안되어 국내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황과 함께, 여러 측면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사용된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삶의 만족 척도는 한국에서도 본래 척도와 같이, 문항 간 신뢰도가 높고, 시간적 안정성을 지니며, 적절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삶의 만족 척도를 구성하는 다섯 문항은 미국에서 사용된 영어로 쓰인 본래 삶의 만족 척도와 같이, 한국에서도 단일한 요인구조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 척도는 정보제공자의 보고와도 적절한 상관을 가지며, 정적 정서, 부적 정

서, 자기개념 등과 같은 관련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적절한 수렴타당도 및 공존타당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정서 측정치들과 구별되어 분별타당도를 만족시킴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삶의 만족 척도는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 단일한 요인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인지적 요소인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가지는 척도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국가 혹은 문화적 차원의 행복 비교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은 경제적 측면 이외의 각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Diener & Suh, 2000). 특히, 주관적 안녕감의 요인 중에서도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판단인 삶의 만족을 비교함으로써, 각 사회 구성원들이 삶과 행복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측정치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

의 정확한 번역 및 고찰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을 보다 체계화 한다는 의미뿐 아니라, 국가간, 문화간 행복수준 비교연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개관은 주관적 안녕감 분야에서 삶의 만족 수준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와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도된 본격적인 개괄 및 고찰 작업이었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이 한국판 척도 개발 과정을 엄격히 거치기보다는, 한국어로 번안된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여러 문화적 차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인 특정적 행복을 측정하려 한다면 새 한국판 척도의 개발이 분명 장점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변인들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구인 자체는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Oishi, Diener, Lucas, & Suh, 1999).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 자체를 측정하는 삶의 만족 척도는 미국에서 개발되었어도 한국 문화에서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비교적 작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구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를 번안해서 사용하면, 기존 결과들과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반면, 새로운 한국판 척도를 개발한다면 기존 연구들에서 측정된 삶에 대한 만족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여 행복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에 불리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개관한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를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이 한국판 척도를 따로

개발하는 것 보다 연구적 장점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들을 통해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삶의 만족 척도와 주관적 안녕감 연구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 제안

첫째, 다양한 표본을 사용한 연구가 필요하다. 1985년 처음 개발된 이후 널리 사용되어 온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 척도 사용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아직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샘플에 적용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이나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다. 이는 자료가 수집된 연구를 포함한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연구의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생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대부분의 사회 및 성격 심리학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그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회 및 성격 심리 분야에서 연구 대상 집단으로서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학부대학생을 사용하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비단 한국에서의 문제만은 아니며,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Arnett, 2008).

삶의 만족 척도가 개발된 목적 중 하나가 전 연령층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척도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학생 집단이 아닌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에는 대부분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PGCMS; Lawton, 1975)이 사용되었다. PGCMS는 특별히 노년층을 그 측정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므로 다른 연령층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모든 연령층, 다양한 집단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전세대적인 삶의 만족 연구를 위해서는, 모든 연령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가 보다 널리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양한 연령집단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 및 특성을 지닌 표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는 1985년 개발된 이후 대학생 집단, 중년층,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측정되었으며, 교도소 수감자, 성 매매업 종사자, 건강 염려 집단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표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Pavot & Diener, 2008). 이러한 다양한 집단에 대하여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 연구가 실시된다면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가 집단 별로 다른 삶의 만족도 수준을 민감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여러 시점에서의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는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Fujita와 Diener(2005)는 독일에서 국가적인 규모로 이루어진 17년 동안의 패널연구를 사용하여 삶의 만족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호 등(2009)에서 5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가 .83($p < .01$)이며, 안신능(2006)에서는 2개월 간격을 둔 검사-재검사 측정을 통하여, 학기 중에 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이

유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r = .77, p < .01$). 그러나 이 두 자료만으로 위의 결과가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 간의 측정오차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인지 구별하기는 어렵다. 다만 실험이 아닌, 설문에 응답하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상황이나 정서 상태 등에 의한 영향이 개인의 기질과 같은 지속적인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Eid & Diener, 2004). 따라서 대부분 설문을 통하여 수집된 한국판 삶의 만족 척도의 결과들에서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에 의한 오차는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앞으로 보다 다양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삶의 만족을 비롯한 주관적 안녕감의 장기적 변화와 유지, 혹은 상황이나 성격의 영향 등에 대한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다양한 측정 방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주관적 안녕감 관련 연구는 자기보고에 의한 측정을 근거로 해왔다(Diener, 1994). 본 개관에서 참고한 연구들도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대다수가 응답자의 자기보고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 다양한 측정방식이 포함된다면, 본 척도 개관 작업은 더 효용성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Csikszentmihalyi와 Hunter(2003)는 경험추출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을 사용한 연구를 통해, 행복에 대한 보고는 경험에 따라 순간적으로도 바뀔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Eid와 Diener(2004)는 개인이 삶의 만족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하는 정보의 차이가 만족도를 보고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들이 실제로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측정된 삶의 만족 척도 값들이 서로 수렴한다는 점과, 수가 적기는 하지만 정보제공자에 의한 보고와 같이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삶의 만족도 값과도 적절한 상관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Diener(1994)는 자기보고식 측정이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다는 점을 논증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한계점이 보완되기 위하여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들이 자기보고식으로 삶의 만족 척도를 측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삶에 대한 만족을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비교 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행복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관적 안녕감의 비교문화적 연구들은 행복의 여러 양상에서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성민선, 2007; Diener & Suh, 2000; Kitayama & Markus, 2000; Suh et al., 1998). 행복 연구에서 비교문화적 접근은 행복의 근본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의 문화차 연구에서 국제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며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는 삶의 만족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연구에 대한 비교문화적 해석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단,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응답은 문화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식의 편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Smith, 2004), 단순한 평균값을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주의

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 표시는 자료 분석에 포함된 연구
- *구자영 (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구재신, 김의철 (2006). 심리적 특성, 생활 경험, 행복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1-18.
- 김완석, 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 61-81.
- *김정운,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누가 로또를 하는가?: 복권유형에 따른 복권구매 행동 규정요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 17-32.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325 -345.
- 김정호, 유제민, 서경현, 임성건, 김선주, 김미리혜, 공수자, 강태영, 이지선, 황정은 (2009). '삶의 만족'은 만족스러운가: 주관적 웰빙 측정의 보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187-205.
- 김진주, 구자영, 서은국 (2006). 객관적인 신체적 매력과 행복.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 61-70.
- 박경혜 (2005).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요인: 개인내적 변인과 관계적 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양, 서경현 (2008). 대학생의 음악선호와

- 웰빙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 497-511.
-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19-31.
- *박진아, 서은국 (2006). 내현이론과 감정조절. 미발표 자료.
- 배주영 (2005). 웰빙제품에 대한 소비자만족이 소비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169-186.
- 성민선 (2007).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의 긍정성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의 문화차.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신능 (2006). 자기개념에 따른 자기불일치와 삶의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육근영, 방희정, 옥정 (2006). 자아 일관성과 주관적 안녕감: 자아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 47-65.
- *윤 훈, 이순철, 오주석 (2007). 고령자의 상실감이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 1-15.
- *이은경 (2008).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 문화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경, 서은국 (2007). 정서억제에 대한 자아 개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7, 408-409.
- *이진 (2008). 개인의 목표성취와 삶의 만족도: 자기 효능감의 역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화령, 임남연, 류초롱, 서은국, 박수진 (2008). 외향적 기질과 행동이 유발하는 정적 정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 159-175.
- *임남연 (2008). 자기조망시점의 차이가 자기정당화동기와 일상적 합리주의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재윤, 유 경, 서은국, 최인철 (2007). 일상재구성법(DRM)을 통해 살펴본 남녀직장인과 주부의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123.
- 조미량 (2004). 외향성 수준과 문화적 자기관 유형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명심, 손정락 (2007). 대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289-305.
- 허현정 (2004). 완벽주의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열등의식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선, 서은국 (2008). 주관적 안녕과 심리적 안녕의 상대적 우세성에 따른 인지적, 성격적 차이. 미발표 자료.
- 황혜진 (2005). 사회비교 빈도와 주관적 안녕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derson, S. M., & Ross, L. (1984). Self-knowledge and social inference: I. The impact of cognitive/affective and behavioral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280-293.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Arnett, J. J. (2008). The neglected 95% Why American psychology needs to become less American. *American Psychologist*, 63, 602-614.
- Arrindell, W. A., Meeuwesen, L., & Huyse, E. J. (1991).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Psychometric properties in a non-psychiatric medical outpatients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117-123.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sta, P. T. J.,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Costa, P. T. J.,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 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sikszentmihalyi, M., & Hunter, J. (2003). Happiness in everyday life: The use of experience sampl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4, 185-199.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personality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103-15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213-22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iener, E., Lucas, R. E., Oishi, S., & Suh, E. M. (2002). Looking up and looking down: Weighting good and bad information i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437-445.
- Diener, E., & Suh, E. M. (1998). Subjective well-being and age: An international analysis. In K. W. Schaie & M. P. Lawton (Eds.),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17, pp.304-324). New York: Springer.
- Diener, E., & Suh, E. M. (1999). National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434-450). New York: Russell Sage.
- Diener, E., & Suh, E. M. (2000).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to compare the quality of life of culture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3-12). Cambridge, MA: MIT Press.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id, M., & Diener, E. (2004). Global judg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Situational variable and

- long-term stabil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65, 245-277.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158-164.
- Headey, B., & Wearing, A. (1989). Personality, life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Toward a dynamic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31-739.
- Heller, D., Watson, D., & Hies, R. (2004). The role of person versus situation in life satisfaction: A critical examin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0, 574-600.
- Heller, D., Watson, D., & Hies, R. (2006). The dynamic proces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74, 1421-1450.
- Inglehart, R., & Klingemann, H.-D. (2000). Genes, culture, democracy, and happines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165-184). Cambridge, MA: MIT Press.
- Kim, Y., Oh, K., & Lee, K. (2007). *A study for standardization and validation of K-CBCL*. Poster presented at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on, Consciousness and Culture, Seoul, Korea.
- Kitayama, S., & Markus, H. R. (2000). Culture, emotion, and well-being: Good feeling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gnition and Emotion*, 14, 93-124.
- Lawton, M. P. (1975).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 85-89.
- Lee, C., & Green, R. T. (1991). Cross-cultural examination of the Fishbein behavioral intention model.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2, 289-305.
- * Lim, N. N., Cha, O., & Suh, E. M. (2007). *Endowment effect for shared versus non-shared objects*. Post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19th Annual Convention, Washington D.C.
- * Lim, N. N., & Suh, E. M. (2008). *Age, power, and perspective taking in hierarchical society*. Poster presented at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ognitive Science, Seoul, Korea.
- Lucas, R. E., Clark, A. E., Georgellis, Y., & Diener, E. (2004). Unemployment alters the set point for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15, 8-13.
- Lucas, R. E., Diener, E., & Suh, E. M. (1996). Discriminant validity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616-628.
- Lucas, R. E., & Fujita, F. (2000). Factors influencing the relation between extraversion and pleasant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39-1056.
- Lucas, R. E., & Gohm, C. L. (2000). Age and sex differences in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In E. Diener & E. M.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291-317). Cambridge, MA: MIT Press.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agnus, K., Diener, E., Fujita, F., & Pavot, W. (1993).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as predictors of objective life events: A

-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046-1053.
- Neugarten, B. L., Havinghurst, R., & Tobin,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 Norenzayan, A., & Heine, S. J. (2005). Psychological universals: What are they and how can we know? *Psychological Bulletin*, 131, 763-784.
- Oishi, S. (2001). Culture and memory for emotional experiences: On-line vs. retrospective judgments of subjective well-being.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 61, 5625.
- Oishi, S., Diener, E., Lucas, R., & Suh, E. (1999). Cross-cultural variations in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Perspectives from needs and valu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980-990.
- *Park, J., & Suh, E. M. (2006). *Implicit theory and mood regulation process*. Post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s Educational Miracle, Incheon, Korea.
- Pavot, W., & Diener, E.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 164-172.
- Pavot, W., & Diener, E. (2008).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and the emerging construc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 137-152.
- Pavot, W., Diener, E., Colvin, C. R., & Sandvik, E. (1991). Further validation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Evidence for the cross-method convergence of well-being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149-161.
- Rorer, L. G. (1965). The great response-style myth. *Psychological Bulletin*, 63, 129-156.
- Schimmack, U., Diener, E., & Oishi, S. (2002). Life-satisfaction is a momentary judgment and a stable personality characteristic: The use of chronically accessible and stable sources. *Journal of Personality*, 70, 345-384.
- Schimmack, U., & Oishi, S. (2005). The influence of chronically and temporarily accessible information on life satisfaction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 395-406.
- Schwarz, N., & Strack, F. (1991). Evaluating one's life: A judgment model of subjective well-being.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22-47). New York: Pergamon Press.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92.
- Smith, P. B. (2004). Acquiescent response bias as an aspect of cultural communication styl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 50-61.
- Stubbe, J. H., Posthuma, D., Boomsma, D. I., & Geus, E. J. C. (2005). Heritability of life satisfaction in adults: A twin-family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35, 1-8.
- Suh, E. (1994). Emotion norms, value, familiar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cultural examination. Unpublished M.A.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Suh, E. M., Diener, E., & Fujita, F. (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91-1102.
- Suh, E. M.,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s across cultures: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82-493.
- Suh, E. M., & Koo, J. (2008). Comparing subjective well-being across cultures and nations: The “what” and “why” questions.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414-427). New York: Guilford Press.
- *Sung, M., Cha, O., & Suh, E. M. (2007). *The unpleasantness of eating alone: Type of food and location matters*. Post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19th Annual Convention, Washington D.C.
- Veenhoven, R. (1993). *Happiness in nations: Subjective appreciation of life in 56 nations 1946-1992*. Rotterdam, The Netherlands: Erasmus Univ.
- Veenhoven, R. (1999). Quality-of-life in individualistic society: A comparison of 43 nations in the early 1999'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8, 157-186.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 294-306.
- 1차원고접수 : 2009. 9. 20.
수정원고접수 : 2009. 11. 27.
최종게재결정 : 2010. 1. 26.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findings in Korea

Nangyeon Lim

Hwaryung Lee

Eunkook M. Suh

Yonsei University

There is a recent upsurge of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in Korea, requiring psychometric evaluations of this construct's key measures.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which measures the cognitive judgment of overall life satisfaction, has been translated and used widely in Korea without a thorough review. This review article evaluate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measured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found relevant data from 19 studies performed between 2003 to 2008, including a total of 4,342 Korean respondents. In short, SWLS displayed strong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revealed a one-factor structure, equivalent with the previous American findings. In addition, significant and adequate correlations were observed between SWLS and related variables, demonstrating that the SWLS ha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research on subjective well-being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Korean; Subjective well-being; Reliability; Validity